

못자리 않고 이양기로 범씨 뿌린다

노동력·시간 절약... 생육 우수·벼 쓰러짐 방지

도 농기원·장흥해남 농기센터 연시회 개최

관행적인 못자리 유효단계 없이 짜는 범씨를 눈에 파종해 노동력과 벼 농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농법이 개발돼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장흥, 해남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는(물을 채운 논) 골 점파(占播) 직파' 연시회를 개최했다.

새로 개발된 직파 재배기술은 기존의 마른은 줄뿌림 등 직파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5년간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개선해 실용화한 것이다.

이 기술은 기존 직접 범씨를 뿌리는 직파재배와 달리 물을 채운 논에 이양기를 이용해 골을 파고 1~2mm의 깊이에 범씨 5~7개를 균일하게 뿌린다.

농촌진흥청의 시험결과 기준 이상

기를 사용한 모내기에 비해 34.6%의 노동력이 절감되고, 총 노동시간 역시 기계 모내기가 10(a)(300평)당 30.7시간 소요되며 이를 위해 무는 점파는 2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모판에 범씨를 뿌려 유효하는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3~8일간의 기간이 단축될뿐만 아니라 적정한 깊이의 골에 범씨를 뿌림에 따라 초기 생육이 우수하고, 잡초성 벼 발생이 적고 뿌리 활착이 좋아 벼 쓰러짐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는 직파기술이 확대보급될 경우 수입쌀 시장과 쌀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쌀 생산

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벼농

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올해 용산면, 인양면 등 59ha, 해남군 역시 51ha에서 무는 점파 시범재배에 나섰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주윤기 작물환경담당은 "새로운 직파 재배기술인 무는 점파는 일반 기계이양기와 비교해 품질과 수량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올해 시범재배의 효과를 분석해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벼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해남=박희석기자 dia@

세라믹분야 세계 1위 美 알프레드대

여수분교 설립 가시화

대학관계자 회양지구 방문

세라믹 신소재부야 세계 1위의 연구교육기관인 미국 알프레드대학의 여수분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미국 알프레드대학 괴팅 쿠네오 이사장과 찰스 에드먼드슨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26일 여수를 방문해 다음달 2일까지 화양지구 분교설립 예정지를 둘러본다"고 밝혔다. 알프레드대학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분교 설립 MOU 체결 이후 실무진 논의와 사전방문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설립 타당성과 여건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알프레드대학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유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1억3천 300만원을 들어 현재 타당성 응액을 실시, 특화대학유치 기본계획과 법적 검토, 타당성·수의성 분석, 외국대학 유치 여건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전남도와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분교설립 전담팀을 구성해 분교설립 계약(MOA) 체결, 재정분담, 학교 건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기자 cki@

해남 '이맑은 김치' 대만 첫 수출

화원농협 김치·반찬 등 올해 20억 수익 예상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 김치'가 대만으로 쳐내 수출됐다.

화원농협은 27일 화원면 청룡리 김치가공장에서 농협 임직원과 NH 무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에 수출되는 김치 선적식을 가졌다.

화원농협은 이번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NH 무역과 연계해 차별화된 상

품과 맛으로 일본·미국 동부·동아시아·중동지역(이라크·카타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정영호 김치가공 공장장은 "현재 주진 중인 수출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수출목표인 20억 원 달성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원농협 김치가공장은 지난 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신식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절임 배추·절임 알타리·묵은지 등 18가지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미 알프레드 대학 측도 지난 2월 대학 운영이 사회 승인을 거쳐 본교 설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분교설립에 성공하면 세라믹 신소재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알프레드대 여수분교 개교는 빠르면 2011년 9월에 가능할 것이다"

며 "국외 유학을 떠나는 고급 인재들의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인력 안정

적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

하는 보쌈김치·갓김치·백김치·깍두기와 함께 최근 출시한 반찬류인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등 7가지 품목으로 모두 14.85t이다. 이 김치는 대만의 세계적인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이다.

화원농협은 이번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NH 무역과 연계해 차별화된 상

품과 맛으로 일본·미국 동부·동아시아·중동지역(이라크·카타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정영호 김치가공 공장장은 "현재 주진 중인 수출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수출목표인 20억 원 달성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원농협 김치가공장은 지난 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신식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절임 배추·절임 알타리·묵은지 등 18가지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미 알프레드 대학 측도 지난 2월 대학 운영이 사회 승인을 거쳐 본교 설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분교설립에 성공하면 세라믹 신소재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알프레드대 여수분교 개교는 빠르면 2011년 9월에 가능할 것이다"

며 "국외 유학을 떠나는 고급 인재들의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인력 안정

적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

하는 보쌈김치·갓김치·백김치·깍두기와 함께 최근 출시한 반찬류인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등 7가지 품목으로 모두 14.85t이다. 이 김치는 대만의 세계적인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이다.

화원농협은 이번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NH 무역과 연계해 차별화된 상

품과 맛으로 일본·미국 동부·동아시아·중동지역(이라크·카타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정영호 김치가공 공장장은 "현재 주진 중인 수출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수출목표인 20억 원 달성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원농협 김치가공장은 지난 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신식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절임 배추·절임 알타리·묵은지 등 18가지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미 알프레드 대학 측도 지난 2월 대학 운영이 사회 승인을 거쳐 본교 설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분교설립에 성공하면 세라믹 신소재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알프레드대 여수분교 개교는 빠르면 2011년 9월에 가능할 것이다"

며 "국외 유학을 떠나는 고급 인재들의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인력 안정

적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

하는 보쌈김치·갓김치·백김치·깍두기와 함께 최근 출시한 반찬류인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등 7가지 품목으로 모두 14.85t이다. 이 김치는 대만의 세계적인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이다.

화원농협은 이번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NH 무역과 연계해 차별화된 상

품과 맛으로 일본·미국 동부·동아시아·중동지역(이라크·카타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정영호 김치가공 공장장은 "현재 주진 중인 수출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수출목표인 20억 원 달성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원농협 김치가공장은 지난 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신식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절임 배추·절임 알타리·묵은지 등 18가지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27일 백제불교 최초 도래 성지에서 '2009 영광 법성포 굴비 단오제' 일원으로 고현들을 위로하는 수륙대재(水陸大齋)가 봉행되고 있다. 단오제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법성포 숲에서 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법성포 단오제 수륙대재 봉행

나주 배 농가 수십억 우박 피해

2cm크기 국지성 우박 40여분간 쏟아져

상처·멍 등 상품성 떨어져… 피해접수 받아

바둑알 크기의 우박이 지난 26일 나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과수농 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나주시와 나주배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20분경부터 6시까지 40여 분간 나주시 남평면을 비롯해 금천면, 산포면, 왕곡면 등지에 국지성 우박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나주시 금천면의 손두연(43)씨 과수원은 지름 2cm 정도로 한 곳

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해당 지역의 과수농가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실제 우박 피해를 입은 배나무의 경우 열매에 상처가 나거나 겹게 변하고 명이 들어 수확기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로 수확에 역원대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의 손두연(43)씨 과수원의 경우 배나무에 맺은 열매 대

부분이 상처가 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왕곡면의 정감용(65)씨 등 300여 농가들도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피해농가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나주배조합은 27일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한규택 과장은 "나주지역 과수농가의 10%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상처난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 천연염색문화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이 1종 전문박물관(공립)으로 등록됐다. 또 운영재단인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천연염색지도사자격시험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다.

천연염색문화관의 1종 박물관 등록에 따라 국내 천연염색 유물의 전시, 수집, 조사, 연구, 산업화 추진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기대된다. 전남지역 1종 박물관은 나주박물관 등 공립 8곳, 목포대박물관 등 대학 2곳, 선암사 성보박물관 등 사립 4곳 등 15곳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완도수목원 산악자전거코스 각광

40km 경사·굴곡 적당

국내 최대 난대림 집단자생지인 완도수목원이 최근 들어 산악자전거 코스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27일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제1단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패러다임과 '녹색의 땅 전남'을 실현해나가는 도정 이행에 앞장서 기 위해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했다.

지난 1991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의 난대림 집단자생지이다.



한 난대수목원으로 난대림 관리를 위한 임도와 자연관찰로 등 40여km에 이르는 산악도로를 개설했다. 적당한 경사와 굽이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들까지 산악자전거의 묘미를 맘껏 즐길 수 있다.

/완도=정경자 ejchung@

국민증개사 :김 행 속

062)351-8240
H.P 010-7203-1100

공인증개사

경찰서·법원·증명서 등

국민증개사

국민증개